

법농업인 21세기농업개혁위원회(이하 농개위)는 12월22일 차기정권의 농정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집권여당이 되는 국회의원과 자민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농개위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원석 단국대교수를 통해 이 안이 제시됐다.

이 안은 농개위 집행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초안을 공동대표단과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농개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고 있다. 농개위는 38개 농업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한 농업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단체라는 점에서 이 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집권여당이 가장 먼저 농개위의 입장을 듣는 토론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농개위는 "21세기 농업개혁의 과제"라는 주제로 차기정부의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50년간의 농정이 실패한 원인을 진단하고 현 IMF시대의 위기에서 교훈을 찾았다. 그리고 "작고 강한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큰 방향하에서 농업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농개위는 지난 50년간 농정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문민정부 이전에는 경제발전의 "희생양"이

차기정권에 제시한 '농개위'의 농정개혁 방향

되었고 문민정부에서는 자율농정을 표방하며 개혁을 시도했으나 영농의 주체인 "농가"가 소외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IMF를 맞아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이 없는 해외의존형 성장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농업도 국내자원의존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정관련 기관과 기구의 비대화·경직화로 탄력적인 대응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부문 3자의 새로운 관계정립에 의한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기획·조정·평가 등 정책기능만을 수행하고 집행기능은 지방정부에 이양하며 민간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농정에 참여하는 "작고 강한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개위는 이러한 방향아래 주요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가족농 중심의 전문화·협동화 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의 안정을 위해 투자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자원의존형에서 국내자원 이용형, 에너지절약형 농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개혁안은 민간부문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협동조합 등 민간부문은 개별농가 규모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농가경쟁력 향상기능을 수행하고 농정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개위는 모든 농민단체들의 연대단체로 "농업회소"를 설립, 범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회소는 농업현안 및 업계실태에 대한 조사연구와 지도교육사업, 정부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축·임·삼협중앙회는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신용·지도사업을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완전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시 경영평가에 따라 고용을 조정하고 지역조합도 조합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효율적으로 통제할 것을 주장했다. 중앙회 신용사업은 독립운영체제를 강화하고 도지역본부와 군지부를 폐쇄하고 권역별 연합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농개위는 지방분권과 시장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대비해 지방농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선사업, 양정, 농지 등 농정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방농업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업무이관에 따라 지방소재 중앙기관의 지방화와 통폐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변화되는데 따라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을 주장했다. 농림부를 농림수산부로 개편하고 산림청은 농림수산부 산하 입산지원국으로,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정부기관 및 기구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날 토론의 중심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표 직전 내용을 삭제했다.

농개위는 농업은 식품산업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구조개선사업의 지속, 식량안보의 달성 등 구체적인 방침들을 제시했다.

농개위의 개혁안은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날 토론에서는 조직개편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주로 다루졌다. 농개위가 축소 내지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관·단체 사람들은 그들의 "목"이 달려있는 문제여서 다른데 관심을 둘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이날 토론은 정권인수 정당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공식적인 여론수렴의 장이었기 때문에 개혁방향에 대한 가장 원칙적인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세워지고 이에따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앞뒤가 바뀐 것이다. 개혁논의가 자칫 "지리싸움"으로 "타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집권당의 현명한 논의전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은 정권인수 정당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공식적인 여론수렴의 장이었기 때문에 개혁방향에 대한 가장 원칙적인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세워지고 이에따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앞뒤가 바뀐 것이다. 개혁논의가 자칫 "지리싸움"으로 "타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집권당의 현명한 논의전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축산물가공업 무 다시 '눈독'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농림부로 일원화된 축산물가공업 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권교체를 틈타 다시 복지부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축산업계가 분노하고 있다.

농림부는 특히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늘상 해오던 소리' 정도로 무시하면서도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다.

축산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며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청으로 확대해 축산물가공업의 검사업무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축산업계는 분노를 표시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원했고 행정체신위원회와 정기국회에서까지 결정난 사항을 정권인수기의 어수선한 틈을 타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를 '청'으로 확대하며 다시 가져가려는 것은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적인 예라고 비난했다.

축산업계는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청으로 확대해 이 축산물가공업의 검사업무를 다시 가져가려는 만큼 농림부도 미국의 FSIS(축산물검사국)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축산물가공업 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중에 있으며 올 7월1일부터 검사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에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또 수의과학연구소도 각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보수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농수축산신문: 98/1/19>

가까꿀 제조업자 입건 '죽산·임실농협'등 위장상표로 1억5천만원어치 팔아

지난 1월23일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설 대목을 노려 가짜 농협상표(라벨)를 붙인 가짜 벌꿀상품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로 유성재씨(33살) 등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 등은 이날 초부터 경기도 양주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서 농협과 축협 등의 가짜 상표가 붙은

가짜꿀 1억5천여만원 어치 7천여병을 만들어 경동시장 등 재래시장에 유통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대가 압수한 7점의 가짜벌꿀-위장상표 라벨에는 '죽산농협협동조합', '임실농협협동조합', '지리산토종꿀' 등 3종이 버젓이 붙어 있었다.

진해양봉인들 작목반 구성 '진해벌꿀' 브랜드화 추진

지난 12월3일 경남 진해시농촌지도소에서 관내 23여명의 양봉농가들이 모여 진해시양봉작목반 조직총회를 열고 정관제정 및 사업

계획을 확정해 정식 출범했다. 동 작목반은 앞으로 진해농촌지도소 지도하에 진해벌꿀 브랜드화를 위해 경남 QC마크 획득과 영농법인화를 추진기로 했다.

이어 지난 12월22일에는 진해농촌지도소에서 농정과 공무원과 작

목반원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양봉기술교육강좌를 열고 한성우 경남지회장이 꿀벌사양기술에 대하여 강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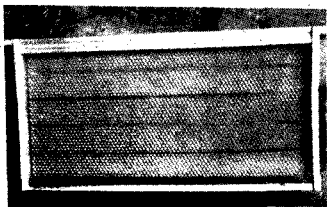
진해양봉작목반 임원진 구성은 반장 이종구(진해시 소사동 맨션 305호 전화 44-8564, 양봉 100군), 부반장 송수호(진해시 여좌동 94-1 전화 546-5473, 양봉 20군), 총무 최준용(진해시 여좌동 193-4 전화 546-1136, 양봉 100군), 감사 2인에는 정신철(진해시 삼내동 345. 전화 546-1136, 양봉 100군), 이명술(진해시 동성아파트 4-105. 전화 546-6143, 양봉 20군)이다.

한 음

지난 1월9일 김병철 회원(향년 51세, 금산양봉원 대표, 충남 금산읍 하곡3리 219-2)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전업양봉인 출신으로서 1981년 '금산양봉원'을 창업과 동시에 본회 품질관리제도에 16년간 참여해왔다.

양봉기자재 전문 판매

- 소상 10매무창 18,000원
- 소상 12매무창 20,000 "
- 소광(특제) 800 "
- 광식사양기 1,800 "
- 채유광 1,000 "
- 정화소초광 1,800 "
- 격리판 1,200 "



상기 판매가격은 임시 가격이며 소초광은 전량 밀양양봉원 소초를 사용합니다.

정화양봉원

☎(0652)211-4772
74-3263

☎560-200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9-2. 한 장 회
온라인 · 국민은행 501-01-0082-265 · 우체국401901-0083012
· 농협 501010-52-129746

첨단기술의 밀양소초

본원의 소초는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소초계의 정상을 달리는 본원 소초는 그 품질을 전국 양봉인들이 보증하고 있으므로 유사품에 유의하시어 본원 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더욱 사임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웅봉저소초와 재래종소초도 생산발매

- 봉산물
- 봉기구
- 종봉

밀양양봉원

☎경남 밀양시 내이동 911(밀양우체국앞)
☎(0527)354-2572 · 53-5688 대표 박영순